

재외동포의

창

February 2017



다가가면 날아갈 것 같은 생생함 느껴져

조선 후기 화가 변상벽의 그림 '어미 닭과 병아리'

2017년은 정유년(丁酉年), '붉은 닭의 해'이다. 60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육십 간지 중 34번째 해이며 정(丁)은 붉은색을, 유(酉)는 닭을 의미한다. 닭을 소재로 한 그림은 조선 후기 화가 변상벽(1739~1775년)의 '어미 닭과 병아리'(鷄圖)를 꼽을 수 있다. 고양이와 닭을 잘 그려서 '변고양이', '변닭'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화가의 작품답게 그림 속의 닭과 병아리는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하다. 조선 후기 화조화(花鳥畵) 중에서도 가장 사실적이고 정밀한 화풍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림 속의 어미 닭은 뚝뚝한 눈썹만 아니라 적당히 살이 오른 당당한 몸체, 가지런하고 윤기 흐르는 깃털을 가진 명민하고 믿음직한 모습이다. 열네 마리나 되는 병아리를 건사하려면 이 정도의 위풍은 있어야 할 것 같다. 어미 닭의 깃털은 하나하나 공들여 그려졌고, 아무진 부리, 당당하게 서 있는 다리 역시 그 모양새와 묘사가 매우 정밀하고 생생하다.

병아리 묘사 또한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이 세밀하다. 깃털과 형태의 묘사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자세와 새끼들의 행태를 귀엽고 다양하게 보여준다. 그림의 배경을 보면, 괴석과 나비, 벌, 꽃이 있다. 나비와 벌, 꽃은 사실적으로 그렸지만, 괴석은 대담하게 몇 번의 붓질로 그렸다. 이 그림은 꽃과 새가 어우러진 화조화로 분류될 수 있으나 주인공인 닭과 병아리를 세밀하게 그리고 괴석과 배경은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그리는 특징을 보여준다.

변상벽은 닭과 고양이를 잘 그리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초상화도 잘 그려서 국수(國手)라고 일컬어졌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변상벽이 그린 닭과 병아리 그림을 보고 그 사실에 가까운 생생함에 감탄하며 수탉이 이 그림을 보고 진짜라고 오인할 정도



조선 후기 화가 변상벽의 계도(鷄圖)와 묘작도(貓雀圖). '변고양이', '변계'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고양이와 닭의 그림을 잘 그렸으며 초상화 화가로도 명성이 높다.

였다고 전하고 있다. 변상벽은 단지 닭과 병아리를 사실적으로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어미 닭의 모정이나 어미와 새끼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정 또한 화폭에 담아냈다는 것을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읽어낼 수 있는데, 정약용 또한 같은 것을 감지하고 화평으로 남김으로써 그림 감상을 더욱 흥미롭게 만든다. 조선 시대에는 동물 그림보다는 산수화 그리는 것을 더 높게 보았다. 많은 화가가 그런 분위기속에서 잘 그리지도 않고 개성 없는 그림들을 그리는 것에 비해 변상벽은 사실적이고 정밀하게 그림으로써 채색 화조화에서 새로운 전통을 만든 화가로 평가되고 있다. **창**



CONTENTS

2017. 02



- 02 한국의 얼 다가가면 날아갈 것 같은 생생함 느껴져
조선 후기 화가 변상벽의 그림 '어미 닭과 병아리'
- 04 특집 평창올림픽 G-1년 준비 완료 선포... "전 세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G-1년 올림픽 페스티벌 개막... 온 국민 열기 확산 본격 시동
- 06 화제 재외동포재단, 설 앞두고 '조선족 타운' 찾아 "힘내세요"
주철기 이사장 등 임직원 서울 대림동 중앙시장 방문

미주 한인 이민 114년 기념식, 주류사회 한민족 자긍심 드높이다
주철기 이사장 위싱턴·시카고서 동포 간담회 "통일에 동포사회 일조"
- 10 기획 경제성장으로 한인사회도 안정... 직항로 개설로 더 가까워져
대기업 진출과 함께 뿌리내린 폴란드 한인사회
- 12 글로벌 코리아 '오타와 명예시민상' 수상한 캐나다 '태권도 대부' 이태은 사범
일본강점기 그림엽서집 발간한 재일동포 고성일 씨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축하무대 선 로즈 장
- 14 동포소식 중국조선족 역사 집대성 '조선족 100년 실록' 발간 외
- 17 동포 캘린더 한국인 원양어업 진출 기록 '우리들의 50년' 출간 외
- 18 주목! 차세대 한국전 참전용사 만나러 24개국 찾는 재미동포 한나 김 씨
"감사 전하고, 전쟁 기록 수집해 젊은 세대에게 알리겠다"
- 19 유공동포 흥남철수작전 때 10만 피란민 구한 '한국의 선들러' 현봉학 박사 동상 건립
후진양성과 저술 활동으로 한·미 양국 의학계에 공헌
- 20 지구촌통신원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 선생 스페인 집 기념관으로 개관
마요르카 섬 자택, 개·보수... 한국 문화 알리는 홍보효과 기대
- 21 한민족공감 加 안방 웃기고 올린 '김씨네 편의점' 인기리 종영... 올해 시즌2 방영
한인 가정 그려 아시아계에 특히 인기... 페이스북 '좋아요' 2만 개
- 22 OKF 뉴스 재외동포 차세대 한상들, 모국 청소년에 장학금 지원 외
-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 24 고향의 맛·멋 '바다의 우유'로 불리는 영양 덩어리... 피부에도 좋아
겨울철 빼놓을 수 없는 별미, 충남 보령 '천북 굴구이'
- 26 재단공지



표지 이야기

2018평창동계올림픽 'G(Game)-1년' 인 2월 9일 강원도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대회 준비 완료로 선포했다.



발행인 : 주철기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조사부 pr@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G-1년 준비 완료 선포... “전 세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G-1년 올림픽 페스티벌 개막... 온 국민 열기 확산 본격 시동

문화로 여는 평창동계올림픽이
2월 9일 기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G(Game)-1년’을 맞아
대회 준비 완료를 선포했다.
조직위는 대회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제효과도 거두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다.
조직위는 ‘당신이 평창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2월 19일까지
페스티벌을 펼쳤다.

1~2.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 행사가 진행될 경기장(사진 좌)과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현장.

“1년 후, 전 세계 여러분들을 평창으로 초대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G(Game)-1년’인 2월 9일 강원도와 평창동계 올림픽조직위원회가 대회 준비 완료를 선포했다.

강릉하키센터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정세균 국회의장, 구닐라 린드버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조정위원장, 최문순 강원 지사, 이희범 조직위원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G-1년 올림픽 페스티벌’ 개막식을 하고 범국민적 열기 확산과 성공개최를 기원했다.

행사에는 황영철 국회 동계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 김동일 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피겨퀸 김연아와 조세연 사진작가,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주민 등 8천 500여 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은 ‘G-1년, 평창올림픽 준비 완료’(Ready for PyeongChang 2018!) “1년 후, 전 세계 여러분들을 평창으로 초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1부 행사에서 원주시의 ‘돛가비지계’ 공연과 1군사령부의 태권도 시범, 문화도민운동협의회 회원 70명이 웰컴투평창 플래시몹 댄스 퍼포먼스로 흥을 돋웠다.

특히 ‘문화올림픽을 향하여’ 주제 영상을 통해 올림픽을 준비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1년 후 펼쳐질 새로운 열정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해



1



2



3



4

3. 2월 9일 강원도 강릉 하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G-1년 기념행사에서 제1야전군 사령부 시범단이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있다.
4. 강원도 강릉 하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G-1년 기념행사에서 퍼포먼스가 열리고 있다.

감동을 끌어냈다.

2부는 주요인사 입장에 이어 올림픽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성공 신화를 담은 영상을 상영하고 어린이들과 무용수가 함께 '그날을 위해'를 주제로 눈 큐브를 활용한 눈과 빛 퍼포먼스를 펼쳤다.

송소희와 함께하는 2천18명의 강원도 아리랑 대합창에 이은 올림픽 기수단 정렬과 올림픽기 게양, 올림픽 찬가가 이어져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88서울올림픽, 2002월드컵에 이은 성공개최 확산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199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비롯한 국제대회를 성공 개최한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믿는다"며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확신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올림픽을 잘 치러내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제효과도 거두는 두 마리 토끼를 우리가 꼭 잡아야겠다"며 "위축된 국민께서 어깨를 펴고 화합하는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구닐라 린드버그 IOC 조정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뛰어난 협력 덕분에 세계 최고수준의 개최 경기가 계획대로 모습을 갖추고 있다"며 "선수들에겐 특별한 대회가 될 것이고 세계 스포츠 팬들은 한국 고유문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눈과 빙판에서 일어나는 올림픽 스포츠의 마법이 처음으로 한국에 도래할 것"이라며 "한국인은 항상 약속을 지킨다. 올림픽 경기가 모든 사람에게 멋진 경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주요인사는 '올림픽의 환희'를 주제로 G-1년 카운트다운 퍼

포먼스를 펼쳤다. 시계를 둘러싼 얼음벽을 깨고, 스노우볼을 터치해 스크린에 'One Year to GO'를 표출, 1년 남은 평창올림픽 성공개최를 다짐했다.

올림픽 성화봉과 주자 유니폼을 공개해 관심을 끌었으며, 2천18명이 대합창으로 'We are the Champions', 'Butterfly'를 노래해 절정 분위기를 끌어냈다.

3부에서는 가수 인순이와 여자친구, B1A4, 송소희 등의 축하공연이 펼쳐졌으며 지상파 방송 3사는 G-1년 기념행사를 생방송으로 중계했다.

문화 올림픽 위한 G-1년 페스티벌 개최

G-1년 올림픽 페스티벌은 2월 19일까지 테스트이벤트와 연계해 강릉 평창 정선 등 개최지 일원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펼쳐졌다.

'당신이 평창입니다'(It's you, PyeongChang)가 슬로건이다. 날마다 어디서나 문화가 있는 올림픽, 전 국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올림픽, 세계와 함께하고 유산으로 남는 올림픽 등 문화올림픽 실현이 목표다.

도내 18개 시군 공연단은 물론 전국 시도 공연단, 5개 국립예술단, 외국 공연단 등 55개 국내외 공연단이 19일까지 강릉 특설무대, 해람문화관, 단오문화관 등 3곳에서 매일 공연을 선보였다.

시도·시군·외국 공연 등으로 구성해 2018년 문화올림픽 완성을 위한 시범공연 형태로 진행됐다.

2월 11일에는 경포 해변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참가하는 경포세계불꽃축제가 펼쳐졌고 2월 18일에는 용평돔에서 K-드라마 인 평창 공연이 열렸다. 5천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참여해 평창올림픽 열기 확산에 나섰다. **한**

재외동포재단, 설 앞두고 ‘조선족 타운’ 찾아 “힘내세요”

주철기 이사장 등 임직원 서울 대림동 중앙시장 방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조선족은 7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사진은 '조선족타운'을 형성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사진 좌측)과 광진구 자양동 거리.

재한조선족 70만 시대, 한국은 '제2의 고향'

주철기 이사장을 비롯한 재외동포재단 임직원들이 1월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를 돌며 타향에서 설 명절을 맞는 중국동포(조선족)들을 격려했다.

주철기 이사장, 김영근 사업이사, 한광수 기획실장, 이훈용 동포단체지원부장, 정지영 홍보조사부장 등은 이날 김성학 중국동포연합중앙회장의 안내를 받아 대림동 중앙시장을 방문해 조선족 상인들과 덕담을 나누며 타향살이의 고충을 위로했다.

조선족만 7만~8만 명이 모여 살아 '조선족 타운'으로 부르는 대림동 한가운데 자리 잡은 중앙시장은 이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보를 교환하는 애환이 깃든 곳으로, 이날 역시 명절을 보내기 위해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주 이사장은 가게 앞에서 즉석 메질로 인절미를 만들어 파는 조선족 상인에게 떡을 사면서 "추운데 고생이 많다. 명절이라고 고향 생각 많이 날 텐데 기운을 내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또 시장을 둘러보며 만나는 상인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고 더욱 번창하라"고 격려하면서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에 감동하고 있다"고 용기를 줬다.

이날 재외동포재단 임직원들이 중앙시장을 찾은 것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조선족들을 한민족의 일원으로 끌어안기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볼 수 있다.

김 이사는 "재한 조선족이 70만 명을 넘어서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데도 단순노무직 종사자나 불법체류자라는 인식에 머물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중앙시장의 점포는 대부분 조선족이 운영한다. 중국 한자로 쓰인 간판에다 한국인에게는 생소한 중국 식자재, 연변(延邊) 사투리까지 뒤섞여 있는 시장은 흡사 중국에 온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김성학 회장은 "다들 어렵게 살지만 그래도 대림동에서 가게를 가진 조선족은 어느 정도 '코리아인 드림'을 이룬 사람들"이라며 "명절이면 타향 설움이 들기 마련인데 동포재단이 잊지 않고 찾아줘 고맙고 마음 든든하다"고 반겼다.

재외동포재단은 국내 체류 재외동포들이 일시 방문보다 장기 거주가 늘고 있고 내국인과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주 이사장은 "한민족이라는 소속감과 자부심을

재외동포재단 임직원은 설 명절 맞아 서울 대림동 '조선족 타운'을 위문 방문했다. 재한 조선족이 70만 명을 넘어서며 이전과 달리 한국에 정착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재단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은 조선족 동포가 한민족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도록 맞춤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1

“한국서 돈 벌어 고향에 가겠다는 것이 과거 추세라면 한국 정착이 최근 추세다.”

금의환향서 한국 정착이 대세로

“한국서 돈 벌어 고향에 가겠다는 것이 과거 추세라면 한국 정착이 최근 추세다.”

중국 동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다. 중국 동포 사회의 변화가 뚜렷하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 동포의 국내 유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사실상 세대 교체가 이뤄지면서 의식도 변했다.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한중 교류 증가와 중국 관광객의 급증, 그리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중국 동포의 의식도 바뀌고 있다.

가장 큰 변화가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겠다는 중국 동포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뜨내기 아닌 한국 사회의 주인이 되겠다는 의지를 품은 것이다.

서울 구로구 대림동은 물론 신림동, 신대방동, 자양동 건국대 주변, 그리고 경기도 수원역 부근, 성남 수진동, 안산 원곡동 등은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중국 동포 타운이라고 할 수 있다.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가 국민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근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을 계기로 중국 동포의 국내 유입이 활발해졌다. 특히 2007년 방문취업제로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해지자 중국 동포의 입국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한중 간 소득 격차와 임금 차이가 중국 동포의 돈벌이 한국행을 부추겼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최근 통계를 보면 현재 외국인 신분의 중국 동포 수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해서 7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눈에 띄는 건 돈벌이 후 귀국이 목적인 방문취업(H-2)은 갈수록 주는 추세라면 정착 목적의 재외동포(F-4), 영주자격(F-5) 등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2



3

1. 주철기 이사장을 비롯한 재외동포재단 임직원들은 1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를 돌며 타향에서 설 명절을 맞는 조선족들을 격려했다.
2.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등 '조선족 타운'에 거주하는 조선족 동포들은 설 명절을 맞아 타향살이 설움을 달래고 동포 간 화합을 다지기 위해 노래자랑 등 각종 다양한 행사를 매년 열고 있다.
3.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맞아 서울의 조선족타운에서 열린 '설 맛이 동포 노래자랑'에서 조선족 가수가 노래를 하고 있다.

중국 동포인 김용선 한중무역협회장은 “한국 이주 1세대라고 할 노년층은 돈 벌고 고향으로 돌아간 경우가 많다면 젊은 층은 정착을 택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는 “2000년대 초반 한국에 유학와 한국어와 중국어가 능통한 30대와 40대의 창업이 부쩍 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구로동에서 재외동포 학교를 운영중인 문민 어울림학교 교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조선족이 잘 적응하고 있고 한국의 주류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남한은 물론 북한도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조선족이 남북 화해 사업에 앞장서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

미주 한인 이민 114년 기념식, 주류사회 한민족 자긍심 드높이다

주철기 이사장 워싱턴·시카고서 동포 간담회 “통일에 동포사회 일조”



1



2



3

1. 주철기 이사장은 애난데일의 워싱턴 한인연합회관에서 워싱턴 한인회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동포의 고충을 듣고 재단 사업을 소개했다.
2. 1월 13일 시카고시청 로비에서 열린 ‘미주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주철기 이사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3. 시카고 한인사회의 모금과 2005년 재외동포재단의 20만 달러 지원 등에 의해 설립된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은 한인회 사무실, 한글학교, 도서관, 미술관, 한인 동호회 사무실 등이 입주해있다.

1903년 1월 13일 한인이 미국 땅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처음 도착한 지 114년을 맞는 올해에도 미국 워싱턴DC, 시카고, 메릴랜드, 뉴욕 등지에서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미국 연방 상·하원은 2005년 12월 만장일치로 1월 13일을 ‘미주한인의 날’ (The Korean American Day)로 공식 지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재미동포는 한미동맹의 근간, 한민족 위상 강화에 기여”

미주한인재단 워싱턴지회는 1월 12일 워싱턴DC 연방의사당 방문자센터에서 ‘미주한인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올해 12회째를 맞는 행사는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영화 상영, 전통문화 공연 등으로 꾸며졌다.

기념식에는 안호영 주미한국대사,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200여 명의 정·관계 인사와 한·미 한국전쟁 참전용사, 한인사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주 이사장은 축사에서 “미국 주류사회에 굳건하게 뿌리 내린 재미동포의 존재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고 협력의 중요한 요소”라며 “낮선 땅에서 열심히 살며 한민족 위상을 높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고 치하했다.

뉴욕한인회도 같은 날 맨해튼 플라자 호텔에서 ‘제57회 뉴욕한인의 밤 및 미주한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 건립 기금모금’ 특별 이벤트로 마련된 올해 행사는 한인상 시상식, 한인 이민역사 영상 상영, 한국전통 예술과 K-팝 댄스 등의 공연으로 이뤄졌다.

메릴랜드 주 정부는 1월 10일 아나폴리스에 있는 청사에서 한인들의 미국사회 기여를 치하하는 행사를 열었다. 래리 호건 주지사는 이날 ‘미주한인의 날’ 선포식과 함께 한인 단체장들에게 선포장을 전달했다.

‘이민 증가’ 격인 하와이에서도 기념식과 만찬을 진행했다. 한인 단체들은 기념일 당일 오전 호놀룰루 시 인천-하와이공원(인하공원)에서 기념식, 오후 와이키키 리조트호텔에서 기념만찬을 열었다. 특히 만찬에서는 10여 년간 ‘코리안 페스티벌 한국관’을 운영하며 세계인에게 한국문화를 알린 고가현자 부부에게 ‘동방의 빛’ 상을 수여했다.

‘미주한인의 날’을 맞아 워싱턴을 방문한 재외동포재단 주철기 이사장은 11월 11일 워싱턴 한인연합회의 김영천 회장 및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동



주철기 이사장은 미주한인재단 주최로 1월 12일 워싱턴DC 연방의사당 방문자센터에서 열린 '미주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한인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맹 발전, 주류사회로의 성공적 진출이라는 목표를 위한 한인사회의 노력과 발전을 강조했다.

애난데일의 워싱턴 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주 이사장은 “한미동맹 발전과 차세대 역량 강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의 완성이라는 목표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240만 미주 동포, 특히 미국의 수도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에 살아가는 워싱턴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한인연합회가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11일 워싱턴 지역 동포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주 이사장은 “20년을 맞는 재외동포재단의 근본 목표는 750만 한인동포를 섬기는 것”이라면서 “2017년도 예산이 600억 원을 넘는 등 정부의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재단도 동포단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동포사회 지원 확대, “회관 건립 등 자조 노력 중요”

주 이사장은 1월 14일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 29개 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포간담회를 가졌다.

한인문화회관은 단층 5개 동에 도서관, 미술전시장, 무용실, 한국어교실, 한인 동호회 사무실 등이 입주해 있다.

재단은 동포사회에서 한인회관을 건립할 때 자조노력으로 재원의 50% 이상을 모금할 경우 지원을 검토해 총 소요액의 20% 이내로 최대 30만 달러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의 경우 2005년도에 20만 달러를 지원했다.

간담회에서 진안순 한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재외동포재

단이 1997년 창립 이후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미주한인의 날을 맞아 미국, 특히 시카고 한인사회를 격려차 찾아 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동포사회를 직접 보고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한다. 차세대 모국방문, 단체 활동 지원 등 본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워싱턴에 이어 아름다운 시카고시를 방문하게 되어 영광이다.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남북한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난제를 해결해 새로운 동북아 번영을 구상하고자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단체장과 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상록회, 일천만 이산가족위원회, 한인사회발전협의회, 한인사회연구원, 미중서부한국학교협의회 등 관계자들의 질의에 이어 한인 동포회관 마련 지원, 동포재단과 총영사관과의 관계 정립 등에 대한 주 이사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어 주 이사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카고협의회와의 신년 하례식에 참석해 ‘북한 문제 해결 및 새로운 동북아 추진과 동포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쳤다.

주 이사장은 1월 12일에는 부르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바바라 컴스탁 미 연방 하원의원, 박윤식 조지워싱턴대 명예교수, 이보 달더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회장 등을 면담하며 한미 동맹의 강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사장은 통일을 이끄는 데 국제사회 분위기 조성 등에 재외동포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점을 강조했다. **▶**

경제성장으로 한인사회도 안정... 직항로 개설로 더 가까워져

대기업 진출과 함께 뿌리내린 **폴란드 한인사회**



1



2

1. 폴란드 한인회가 한인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 16일 실시한 2차 역사문화 탐방.
2. 바르샤바 시 전경. 2014년 말 기준으로 폴란드 거주 한인인 1천435명이며 이 가운데 수도 바르샤바에 542명이 살고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부유럽의 중심국가인 폴란드의 한인사회 역사는 국내 대기업 진출과 궤를 같이한다. 한국과 폴란드 수교는 1989년 11월 11일 이뤄졌다.

1995년 대우자동차가 폴란드 국영 승용차 공장을 인수한 것은 일대 '사건'이었다. 인수전쟁에서 3년간이나 눈독을 들여온 미국의 GM을 물리친 것이다. 폴란드를 유럽의 전진기지로 만들려던 대우의 꿈은 국내에서 그룹이 와해하면서 그 여파로 폴란드 승용차 공장도 문을 닫게 됐다.

대우의 철수와 더불어 바르샤바 거주 한인 인구도 1천 여명에서 30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국 대기업의 폴란드 진출은 2005~2006년 또 다른 계기를 맞는다. LG가 바르샤바에서 450km 떨어진 브로츠와프에 대규모 전자제품단지

를 건설했고 이 지역 상주 한인이 800여 명으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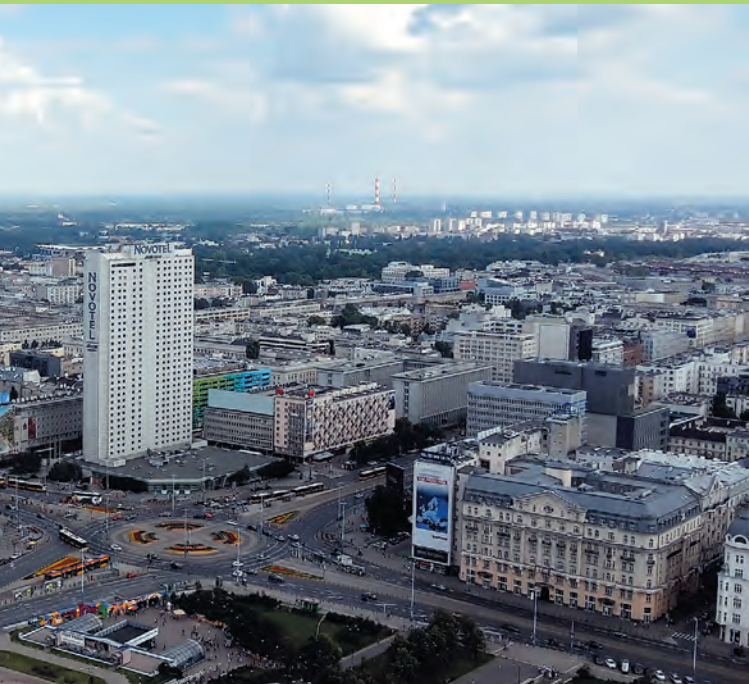
이어 삼성이 2008~2009년 유럽 내 백색가전 생산공장과 연구·개발(R&D) 센터를 폴란드로 옮기자 3천500여 명의 직원이 유입되면서 폴란드 한인사회가 커졌다. 외교부 집계 폴란드 거주 재외동포 숫자는 2014년 말 기준으로 바르샤바 542명을 포함해 1천435명에 달한다. 대기업이 진출한 거점별로 분산되다 보니 바르샤바보다도 지방에 한인 인구가 더 많다.

바르샤바에는 대기업 주재원 이외에 유학생이 100여 명에 달한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우승한 쇼팽 콩쿠르가 열린 곳이 바르샤바이다. 쇼팽아카데미에 음악공부하러 온 유학생이 많지만, 최근에는 교환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순수 개인자영업자는 가족을 합쳐 바르샤바에 150명 정도가 살고 있다. 한식당만도

Poland



- 3. 2013년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권영관 당시 폴란드 한인회장이 한인회가 주최한 역사, 문화 탐방 사례를 소개, 발표하고 있다.
- 4. 유럽한인총연합회가 폴란드한인회와 함께 2013년 11월 바르샤바에서 개최한 제3회 유럽 한인 차세대 한국어응변대회.



10여 곳에 달한다. 한식당이 현지사회에서 자리잡는 데는 대우차 직원을 상대로 식당업을 운영한 경험이 밑거름이 됐다. 한인교회는 바르샤바에 2곳, 지방에 2곳이 있다.

한인회는 1994년부터 시작됐지만 2005년부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작년 말까지 3대에 걸쳐 5년간 한인회를 이끈 권영관 전 회장의 공로가 있다. 외국어대 폴란드어과 1회 졸업생인 그는 재임 기간 한인회 홈페이지를 만들고 주재원 가족을 대상으로 매주 주말 폴란드어 강좌도 개설했다. 특히 폴란드에 살면서도 현지 언어와 역사를 모르고 지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유적지 문화탐방을 실시한 것은 한인사회의 호응을 받았다. 이러한 노력이 평가받아 2013년 우수 한인회 운영사례로 꼽힌바 있다.

폴란드에 처음 발을 디딘 한인들은 거의가 정착이 아니라 돈을 번 뒤 떠나겠다는 거처가는 지역으로 인식했다.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폴란드 한인들의 어려움은 컸다. 권 전 회장은 아파트 생활을 할 때에 사흘 동안 3번이나 집을 털린 적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차량 도난이 잦아 주차할 때면 자물쇠를 2중3중으로 잠가야 했다. 또한 차를 구입할 때 트렁크가 엄청 큰 것으로 골라야 했다. 한달에 한번씩 독일의 베를린 같은 곳에 가서 아이들 분유와 생필품을 가득 실어와야 했기 때문이다. **오늘의 폴란드는 모든 분야에서 물자가 다른 나라보다 더 풍부할 정도로 달라졌다. 2004년 유럽연합(EU) 가입 이후 정부가 치안을 중시하면서 잡범들이 없어진 것은 물론 지금은 유럽에서 최고의 치안국가로 꼽히고 있다.**

폴란드 경제는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성장률이 최근 10년간 평균 3% 선을 유지할 정도로 유럽 내에서는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서 폴란드 한인사회도 초기와는 달리 정착의 뿌리가 깊어지고 있다. 2세들이 현지 학교에 다니면서 법률 의학 등을 공부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전문가로서 활동할 전망을 밝게 해준다. 폴란드는 유선망이 안 좋았기 때문에 무선 인터넷망을 더욱 확충해 현지의 인터넷 환경은 독일보다도 오히려 좋다고 한다. 작년 10월 17일부터 폴란드 현지 LOT 항공이 주 3회 인천-바르샤바 직항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직항로 개설은 양국이 거리상으로도 더 가까워졌고 경제 문화적으로도 관계가 더 확대될 것임을 의미한다. 양국은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다.

한국과 폴란드는 비슷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잦은 외침과 전쟁으로 인한 잿더미에서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룬 점 등에서 그렇다. 폴란드는 유럽국가 가운데 한국의 수출순위에서 3, 4위에 꼽히고 있다.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높고 지정학적으로 유럽의 유통 중심지로 꼽히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폴란드 한인사회의 역할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창**

태권도 통해 사회봉사 실천, 예절교육 등에 앞장서다

‘오타와 명예시민상’ 수상한 캐나다 ‘태권도 대부’ 이태은 사범



캐나다 태권도계에서 ‘대부’ 또는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이태은(74) 사범이 오타와 시가 주는 ‘2016 오타와 명예시민상’을 받았다. 오타와 시는 지난해 11월 10일 홈페이지(<http://ottawa.ca/en>)를 통해 이 사범을 포함한 15명의 명예시민

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 상은 오타와에서 활동하며 시민에게 모범이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친 인물에게 준다. 명예시민상은 짐 왓슨 시장이 시 의원들과 함께 2012년 제정했다.

오타와 한인은 물론 동양인 첫 수상자인 이 사범은 태권도를 통해 사회봉사를 실천하고, 자아개발·정신력 강화·예절교육·리더십 개발 등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명예시민상 수여식은 ‘이태은 태권도 학교’ 설립 40주년 기념

식과 ‘2017 이태은의 날’ 행사가 열리는 올해 5월 말에 있을 예정이다.

이 사범은 수상자 선정 직후 인터뷰에서 “캐나다에서 태권도와 함께한 40여 년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태권도와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 번 더 고민하는 시간을 부여받았다”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남 광주광역시 출생인 그는 1977년 캐나다에 이민해 자신의 이름을 딴 태권도 학교를 오타와 시에 처음으로 세웠다.

오타와를 비롯해 캐나다 전역에 60개가 넘는 태권도 도장과 교실을 운영 중이다. 1988~2001년 캐나다 태권도협회장을 지냈으며, 태권도가 캐나다 정부의 공식 지원 종목으로 지정받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999년 오타와 시 ‘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그는 2008년 캐나다 정부가 주는 ‘올해의 아시안상’을 받았고,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왕위 50주년과 60주년 기념 메달을 연속으로 수여받는 영광을 안았다. 오타와 시는 1997년 5월 31일, 온타리오 주는 2005년 6월 3일을 ‘이태은의 날’로 각각 지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30년간 4천여 점 수집 “시대상 반영된 역사자료”

일본강점기 그림엽서집 발간한 재일동포 고성일 씨

일본강점기 시대상을 담은 그림엽서를 30년간 수집해온 재일동포 수집가 고성일(71) 씨가 최근 일본에서 ‘그림엽서로 보는 일본통치하의 제주도’를 출판했다.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는 고 씨는 책에서 합방 직전인 1909년에 조선 통감이 발행한 근하신년 엽서, 3.1운동 탄압엽서, 한일합방 기념 엽서 등 시대상을 반영한 것과 제주도 풍물을 그린 엽서를 소개했다. 고 씨는 2월 6일 “그림엽서 문화가 발달한 일본에서도 일본강점기의 제주도를 소재로 한 엽서를 책으로 묶어

소개한 것은 처음”이라며 “당시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시대상이 그려진 엽서도 함께 넣어 꾸몄다”고 밝혔다.

제주도 출신으로 1965년 스물한 살에 일본으로 건너간 고 씨는 오사카의 구두 피혁 공장에서 일하며 4자녀를 키웠다. 40살이 되던 해 공장에서 사용하는 시너 성분의 물질로 인한 피부염 후유증으로 일을 그만뒀으며, 취미로 시작한 분재로 생계를 이어가게 됐다. 분재를 하게 되면서 시간 여유가 생긴 그는 우연히 들른 골동품 가게에서 한국 문화재가 잔

득 진열된 것에 놀랐다. 주로 일본강점기에 일본으로 유입된 것들이었다. 빼앗긴 우리 역사라는 생각에 그는 ‘한 작품이라도 수집하겠다’는 마음에서 골동품 수집에 나섰다.

그때 눈에 띈 것이 일본강점기 때 일제가 발행한 그림엽서였다. “조선총독부의 각종 행사 기념엽서를 비롯해 생활풍속을 담은 다양한 엽서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왜 이렇게 많은 엽서를 만들었는지 의문이 들면서 한편으로 당시를 알 수 있는 귀중한 민속자료라는 생각이 들어 수집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수집한 그림엽서가 4천여 점에 이른다.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번 돈을 모두 수집에 쏟아부은 이유에 대해 그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는 사명감 때문이었다”고 담담히 말했다. “그림엽서에

는 일본강점기 36년의 역사가 일목요연하게 드러나 있기에 사료로서의 가치도 있습니다. 박물관 등 적당한 기증처에 넘겨서 기록물로 후대에 전하고 싶은 게 마지막 바람입니다.” 그림엽서 외에도 조선백자, 고려청자 등 도자기와 고려 시대 목각 제품 등 수집한 골동품만도 1천여 점으로 고 씨는 적당한 기증처를 찾고 있다.



“나는 대한민국 관광홍보대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축하무대 선 로즈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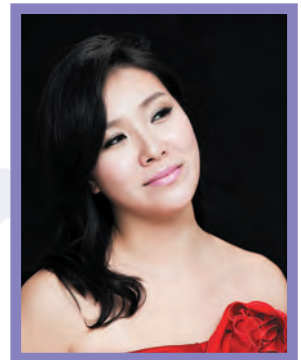
“나는 대한민국 홍보대사입니다.” 현지시간으로 1월 19일 오후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전야제에서 재미동포 2세인 로즈 장(한국명 장미영·38)은 이 같은 일성으로 청중의 이목을 휘어잡았다.

3시간 가까이 계속된 파티의 피날레는 로즈 장이 장식했다. 가슴에 금색의 나뭇잎 모양을 새긴 검은색 드레스 차림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팝페라 가수인 ‘코리안 아메리칸’ 로즈 장입니다”라는 진행자의 소개로 무대에 오른 그는 첫마디로 “나는 대한민국 관광홍보 대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첫 곡으로 뮤지컬 캣츠의 주제곡 ‘메모리’를 부르겠다”고 운을 뗀 로즈 장은 가사의 맨 마지막 구절인 ‘자,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Look, a new day has begun)’를 읊으면서 “오늘부터 트럼프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외쳤다. 참가자들은 열렬히 환호하면서 세계에서 ‘메모리’를 가장 잘 부른다는 로즈 장의 ‘메모리’를 감상했다.

로즈 장은 2008년 유튜브가 전 세계 누리꾼을 대상으로

‘메모리’를 누가 가장 잘 부르는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세계적인 팝페라 가수 사라 브라이트만과 셀린 디온을 제치고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며 스타덤에 올랐다. 이 노래 한 곡으로 클래식 차트에서 4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메모리에 이어서는 한국 민요인 ‘도리지’를 선사했다. 1절은 영어, 2절은 한국어로 부른 뒤 3절을 빠른 템포의 한국어로 부르자 참가자들은 “도리지”를 연호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호응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로즈 장은 스미스 칼리지에서 미술사와 연극을 전공하고 브로드웨이 뮤지컬 무대에 섰다. 이후 세계적인 팝페라 가수이자 ‘월드 디바’로 불리며 세계 무대에서 활동한 그는 제16회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팝페라 상, 서울 석세스 어워드 문화부문 예술상(2009년)을 받았다. [▶](#)



중국조선족 역사 집대성 '조선족 100년 실록' 발간



중국조선족 100년 역사를 집대성한 '중국조선족 100년 실록'.

중국조선족 100년 역사를 집대성한 '중국조선족 100년 실록'이 출간됐다. 중국 지린성의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연변주정협)가 펴낸 실록은 황유복 중앙민족대학 교수, 김광현 연변주정협 문사자료위원회 주임, 우뢰 중국작가협회 부주필, 고몽령 산동문학원 주필, 김창석 연변인민출판사 상하이 지사장 등 10여 명이 편집에 참여했으며 600만 자에 총 10권으로 구성된 방대한 규모이다.

역사·정치·경제·문화·사회·예술·교육 등 각 분야에서 조선족의 발전상을 담고 있다. 편집위원들은 3년 8개월이라는 기간에 걸쳐 동북 3성과 중국 내 주요 조선족 집거지를 비롯해 러시아, 일본, 유럽, 미국 등에서 300여 명을 취재했고, 5천여 장의 사진, 200만 자의 구술 등 방대한 자료를 모아 실록에 담았다. '중국조선족 100년 실록' 출판 기념행사는 지난해 12월 20일 연길 시 연변서관에서 열려 주요 편집위원들에게 감사패가 증정됐다.

주필을 맡았던 황유복 교수는 "실록은 분야별 학자들의 연구 논문이라기보다는 역사를 보존하려는 목적에서 직접 목격하고 듣고 겪은 사람들을 찾아가 당시의 현실을 기록한 '사료집'이라며 "조선족 차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우리 역사를 알리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 조선족 문화발전 역사에서 이룩한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프랑스서 한국독립운동사 가르친다' 파리7대학 강좌 개설



프랑스 파리 디드로 대학에서 열린 '한국독립운동과 프랑스' 국제학술포럼에서 발제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프랑스 파리7대학이 한국독립운동사를 공식적으로 가르친다. 한국학 전공 석사과정 정규과목으로 개설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1월 19일 독립기념관에 따르면 방한 중인 마리 오랑주 파리7대학(디드로) 동양어문학과 교수와 한국독립운동사 강좌 개설에 관한 실무협의를 하고 2017~2018학년도 새 학기부터 한국학 전공 석사과정 커리큘럼에 '한국독립운동의 역사'(가칭)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파리7대학 한국학 전공과 동양어문학, 프랑스 고등연구원(EPHE) 공동강좌로 신설될 한국독립운동사는 2학점으로 운영된다.

독립기념관과 파리7대학은 강좌에 필요한 자료 등 기초자료 확보와 번역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다음 달 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와 협정서 교환 등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987년 개관 이후 우리 독립운동이 세계 평화에 기여한 역사적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주력한 독립기념관은 개관 30주년을 맞아 아시아를 탈피, 미주와 유럽대륙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기로 하고 먼저 프랑스 내 한국학 연구의 중심인 파리 제7대학과 강좌 개설을 타진해 왔다.

호주동포 숙원사업 '시드니 코리아가든' 본격 추진



'시드니 코리아가든' 건립 종합계획안에 나온 조각도.

호주 동포들의 염원인 '시드니 코리아가든' 건립 사업이 새해 들어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시드니 코리아가든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송석준)에 따르면 스트라스필드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6일 회의를 열어 '한·호주 기념정원 및 문화센터' (Australian Korean Memorial Garden and Cultural Centre) 건립 단계별 종합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송 위원장은 "계획안의 시의회 통과를 스트라스필드 시가 예산 150만 달러를 투입해 1단계 공사를 2017년 1월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건립 부지는 브레싱톤파크 뒤쪽 언덕 위 공터였지만 시의회를 통과한 계획안에는 앞쪽 운동장으로 최종 변경됐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1단계 스트라스필드 시, 2단계 한인사회의 참여로 진행된다. 1단계 공사에서는 지반 정리작업과 함께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단층의 커뮤니티 홀을 지을 계획이다. 홀 주변에 연못, 언덕, 정원,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고, 지상 주차장도 건설한다. 1단계 공사비는 150만~200만 달러로 추산된다. 이 예산에는 호주 연방정부가 코리아 가든 건립을 위해 내놓기로 약속한 100만 달러의 지원금이 포함돼 있다.

2단계는 676㎡ 면적의 부지에 다층 문화센터를 건축하는 것이다. 센터 지하나 인근 지상에 주차장도 만들 예정이다. 예산 마련 등을 고려하면 2단계 공사는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위원장은 "문화센터에는 다목적 공연장, 각종 한인 단체 사무실 등이 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일 문인들 도쿄서 '윤동주 추모의 밤' 첫 공동개최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과 사망 72년을 맞아 그의 삶과 문학 세계를 기리는 추모행사가 2월 16일 저녁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한국 YMCA 호텔 9층 강당에서 열렸다.

서울시인협회(회장 민윤기)는 2월 16일 오후 일본 도쿄의 한국YMCA호텔 9층 강당에서 '윤동주 추모의 밤'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한국 시인 38명과 일본 문인 20명, 시민과 재일동포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생애를 기리고 작품세계 등을 조명했다.

협회는 윤동주 탄생 100주년과 사망 7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그가 일본으로 건너와 처음 2주간 머물렀던 한국 YMCA를 추모 장소로 정했다.

이준규 주일대사의 기념 환영사와 민윤기 회장의 '윤동주의 일본 행적'에 대한 소개, 양국 문인이 바라본 고인에 대한 주제 강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아시아신문기자 출신으로 가톨릭대학 초빙교수인 우에무라 다카시의 '일본인은 왜 윤동주를 좋아하는가?', 유자효 시인의 '조선인 차별이 심했던 시기에 어떻게 그처럼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나?', 김재홍 문학평론가의 '윤동주 시의 문학적·시대적 재평가', 재일동포 르포작가 유재순의 '일본 고교 검정 국어 교과서에 윤동주의 서시가 실린 과정' 등의 강연이 펼쳐졌다. 이어 양국의 문인과 재일동포 등이 참여한 윤동주 시 낭독회도 열렸다.

행사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중앙본부, 재일한국YMCA, 재일본한국인연합회가 후원했다.

루뱅대 '한국학연구소' 출범... "유럽의 한국 연구 새 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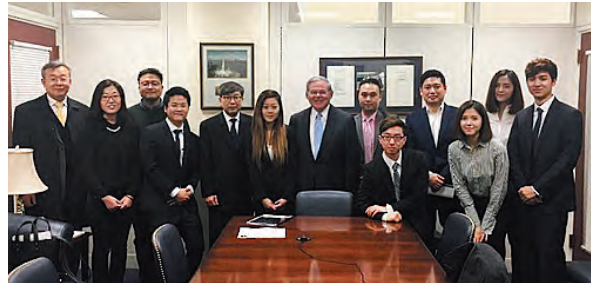
벨기에 루뱅대 '한국학연구소' 출범.

유럽의 수도 벨기에 브뤼셀 인근 대학에 한국을 연구하고 한국 관련 각종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게 될 '한국학연구소'가 문을 열었다. 루뱅대학교는 지난해 11월 28일 교내 동아시아도서관에서 한국학연구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연구소를 공식 발족했다. 벨기에 대학에 한국학연구소가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툴베크 루뱅대 문과대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나라 중 하나로 최근 유럽에서는 한국과 한국어에 대해 더 많이 배우려는 학생들의 수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며 연구소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소는 한국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고, 이를 전파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며 루뱅대에 개설된 한국 관련 강의와 협력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루뱅대 한국학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는 한·일 및 북·일 관계가 전공인 아드리안 카르보네(31) 문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루뱅대는 1425년 설립된 대학으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널리 알려진 대학 중 한 곳으로, 1987년부터 한국어와 한국문화·역사 강의를 개설해 운영해 왔다. 카르보네 연구소장은 "한국은 중국, 일본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나라"라면서 "한국학연구소는 벨기에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과 시야를 넓히고 한국과 한국어를 더 깊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미 한인 풀뿌리 시민단체, 연방의회 '개원 로비'



재미동포 시민단체인 시민참여센터는 1월 3일 연방의회 개원에 맞춰 15명의 연방 의원을 연담했다. 사진은 센터 대표단이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과 연담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재미 한인의 정치력 신장을 위한 시민단체인 시민참여센터가 1월 3일 115회기 미 연방의회 개원에 맞춰 이틀간의 한인 정책 로비 활동에 나섰다. 시민참여센터는 이날 워싱턴 DC 연방의회를 방문해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민주) 상원 의원을 비롯해 15명의 연방의원들과 연담했다. 김동찬 대표와 김동석 상임이사를 비롯한 대표단은 이민정책과 영세자영업자 보호정책, 굳건한 한미관계 등 재미 한인들과 밀접한 역점 사업을 설명하고, 의원들이 입법과 청문회 등 향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둘 것을 요청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이민 공약인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행정명령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3만여 명에 달하는 한인 청년들이 추방 위기에 놓이는 만큼 지금의 유예 조치가 지속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석 이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DACA 행정명령으로 학생과 회사원 등 청년 자녀들이 지난 4년간 추방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행정명령 폐지를 내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이들과 부모들이 하루도 마음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2년 불법 이민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와 불법체류 신분이 된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지난해 6월 현재 74만여 명의 청년이 추방 유예 혜택을 받았으며, 여기에 한인은 1만6천여 명이 포함됐다. [▶](#)

한국인 원양어업 진출 기록 '우리들의 50년' 출간

1966년 5월 13일 대한민국 국적 원양어선 '강화 601호'가 카나리아 군도인 라스팔마스에 입항하면서 시작된 한국 원양어업의 역사를 기록한 책 '우리들의 50년'이 최근 출간됐다. 저자인 고혜선 단국대 명예교수가 현지를 직접 방문해 한인들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것으로, 카나리아 군도에 진출했던 한인들의 반세기에 걸친 발자취를 고스란히 담았다. '한인 라스팔마스 진출 50주년 기념'이란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주라스팔마스 분관이 기획했고, 재외동포재단이 후원해 만들었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8월 군산서 개최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민족 여성 리더들이 모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제17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대회가 8월 말 나흘 일정으로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여성가족부, 전북도, 군산시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500여 명의 여성 리더들이 참석해 해외 지역담당 회의, 기초강연, 글로벌여성리더포럼, 활동분야별 토론회 등을 진행한다. 지난해는 8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려 해외 31개국 230여 명과 국내 300여 명이 참가했다.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9월 서울서 세계대회 연다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World KIMWA) 정명렬 회장(사진)은 "제13회 월드킴와 세계대회를 9월 26~2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연다"고 밝혔다. 외국인 남편을 둔 한국 여성들의 모임인 이 단체는 전 세계 16개국에 34개 지회를 뒀다. 현재 국제결혼한 한인 여성은 전 세계 50만 명으로 추산한다. 파독 간호사 출신으로 독일인 남편을 만나 현지에 정착한 정 회장은 지난해 10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열린 제12회 세계대회에서 회장에 뽑혔다.



미국 메릴랜드 주에 '한국로' 생겼다

미국 메릴랜드 주는 지난해 12월 20일 볼티모어 근교 소도시 엘리컷시티를 통과하는 메릴랜드 주 40번 지방간선도로 '볼티모어 내셔널 파이크'의 일부 구간에 양쪽으로 '한국로' (Korean Way)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했다. 메릴랜드 주지사실은 특정 국가 이름을 도로명으로 삼은 표지판의 건립이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한국계 부인 유미 여사 덕에 '한국사위'로 불리는 래리 호건 주지사가 이번 일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고 설명했다.



중동 · 아프리카 한상들, 두바이서 첫 경제인대회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두바이지회(회장 차진성 · 사진 왼쪽)는 2월 18~20일 두바이 아시아나호텔에서 '제1회 중동 · 아프리카 경제인대회'를 연다. 북미와 동남아시아, 중국, 유럽 등지에서는 현지 지회 주최로 매년 경제인대회가 열리고 있지만, 중동 · 아프리카 지역 대회가 치러지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대회는 '중동시장 진출 성공사례'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중동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 중동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 활성화 포럼 등으로 진행된다.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에 데이비드 오 박사 등 과학자 3명 선정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해 선정하는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에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 활동하는 데이비드 오 박사, 우주선(宇宙線) 전문가인 서은숙 메릴랜드대 물리학과 교수, 윤활유업체 크라이산 인더스트리 창업자인 고국화 박사 등을 지명했다고 미국 정책연구기관 한미경제연구소(KEI)가 1월 13일 밝혔다. KEI는 이날 워싱턴DC의 언론박물관 '뉴지엄'에서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지명자들에게 기념패를 수여했다.



한국전 참전용사 만나러 24개국 찾는 재미동포 한나 김 씨

재미동포 1.5세인 한나 김(한국명 김 예진·33) 씨가 4개월간의 '참전용사 찾아가기' 장정(長征)에 나섰다. 그는 "1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4개월 동안 참전국가를 방문해 용사들을 만날 것"이라며 "이번 여정이 우리 젊은 세대가 한반도에 다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털어놓았다.

한국전쟁 때 병력을 보냈던 16개국과 의료지원 5개국 등 24개국을 돌면서 90세 안팎 고령의 참전용사와 한국 지원에 나섰던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다. 또 '화해'를 위해 러시아, 일본, 중국을 찾는다. 훗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3개국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란다.

김 씨는 미국 LA에서 출발해 캐나다 토론토, 콜롬비아 보고타, 영국 런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 스웨덴 스톡홀름, 노르웨이 오슬로, 덴마크 코펜하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벨기에 브뤼셀, 룩셈부르크,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그리스 아테네, 터키 앙카라와 이스탄불,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인도 뉴델리, 태국 방콕, 필리핀 마닐라, 호주 캔버라와 멜버른, 뉴질랜드 오클랜드, 일본 도쿄, 중국 선양과 베이징 그리고 부산과 서울을 끝으로 여정을 마친다.

각국 참전용사를 만나 감사함을 전하는 동시에 인터뷰를 통해 전쟁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채록



재미동포 1.5세 한나 김 씨(둘째 줄 오른쪽 세 번째)가 참전용사들과 함께 있는 모습.




“
“감사 전하고,
전쟁 기록 수집해
젊은 세대에게 알려겠다”
”

하고, 소장한 사진, 편지 등의 자료도 입수하거나 촬영할 계획이다. 여정을 마치면 이를 다큐멘터리로 엮어 한국과 해외의 젊은 세대가 한국전쟁을 잊지 않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여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 상관없이, 어디서건 동참할 수 있다"며 "일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많은 젊은이와 각국 한인 커뮤니티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2007년 LA에서 워싱턴DC로 이주한

그는 가장 먼저 찾은 한국전 참전 기념비 앞에서 참배한 뒤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꽃다운 나이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의 자유를 위해 산화한 그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그는 참전용사들을 위해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을 제정하고, 끝나지 않은 전쟁임을 알리는 활동을 하며, 참전국을 직접 방문해 용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한국전쟁 정전일인 7월 27일에 맞춰 희생자 추모 및 평화 기원 촛불 문화제를 주최하기 위해 자원자 그룹인 '리멤버 727'을 결성했다. 그리고 매년 이날이 되면 워싱턴DC 링컨 기념관 앞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 행사를 열었다. 문화제는 한국전 개전일을 뜻하는 '오후 6시 25분'에 시작해 정전일을 의미하는 '오후 7시 27분'에 참석자가 일제히 촛불을 밝히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흥남철수작전 때 10만 피란민 구한 '한국의 신들러' 현봉학 박사 동상 건립

한국전쟁 때 피란민 10만여 명의 목숨을 구한 재미 의학자 현봉학(1922~2007년) 박사의 동상이 지난해 12월 19일, 그의 옛 모교 자리인 서울역 앞 연세세브란스빌딩 광장에 섰다. 제막식에서는 미국에 거주하는 현 박사 장녀 에스더 현씨가 선친의 공적을 인정하는 정부의 국가유공자 증서와 보국훈장 통일장을 대신 받았다.

세브란스의전을 졸업한 현 박사는 흥남철수작전에서 미군을 끈질기게 설득, 10만여 명의 피란민을 구해 '한국의 신들러'로 불린다. 흥남철수작전은 1950년 11월 말 중공군의 개입으로 함경남도 장진호 부근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포위되자 그해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흥남항을 통해 10만 5천여 명의 군인을 후방으로 철수시킨 작전이다.

당시 통역관이던 현 박사는 피란민들을 함께 데려가 달라고 에드워드 알몬드 미국 제10군단장에게 애원했다. 현 박사는 "적이 사방에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민간인들이 어디로 갈 수 있겠느냐"며 민간인 동반 철수를 간청해 10만 피란민 철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결국, 알몬드 소장은 군수물자의 철수를 포기하고 피란민 9만8천여 명을 메리디스 빅토리(Meredith Victory)호 등의 선박에 태워 거제도까지 이송했다. 화물선인 메리디스 빅토리호는 정원이 60명인데 피란민 1만 4천여 명을 태웠다. 흥남철수작전에 동원된 수송선은 193척에 이른다.



“
후진양성과
저술 활동으로
한·미 양국 의학계에 공헌
”

이를 두고 현 박사는 '한국판 신들러'로 불리고, 흥남철수 당일인 12월 24일에서 '흥남부두의 크리스마스 기적'이라는 별칭이 회자하기도 한다. 이틀간의 철수 향해 도중 5명의 새생명이 태어났다.

영화 '국제시장' 초반부에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미군 장교의 옷깃을 잡고 설득하는 현 박사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

졌다.

함경북도 성진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현 박사는 해방 후 가족과 함께 38선을 넘어 월남했고, 1947년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일했다. 미국 버지니아 주도 리치먼드에 있는 버지니아주립의과대학에서 유학, 2년 후 임상병리학 펠로우십을 수료했다. 1950년 3월 귀국해 세브란스병원에서 일하다 한국전쟁을 맞았고 한국전쟁 당시 피난지인 대구에서 지인의 소개로 한국 해병대의 문관으로 활동하였으며 그 이후 부대의 이동에 따라 강원도 고성에 머물다가 알몬드 10군단장을 만나 민사부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흥남철수 작전에 관여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펜실베이니아 의대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임상병리학회, 국제혈액학회, 한국임상병리학회 명예 회원으로 활동했고, 토머스 제퍼슨대, 펜실베이니아 의과대 등에서 병리학 교수를 역임, 후진양성에 힘썼다.

그는 또 한국 보건부장관 고문, 미 의학회 편집위원, 미 병리학회지 편집위원을 지내며 저술 활동을 활발히 펼쳐 한·미 양국 의학계에 공헌한 인물로 평가받았으며 2005년에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서재필의학상'을 수상했다. 2007년 11월 25일 미국 뉴저지 주 윌렌버그 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고(故) 현시학 제독과 문필가 피터 현 씨가 동생이다. [장]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 선생 스페인 집 기념관으로 개관



주스페인 한국대사관 제공



지난해 12월 15일 스페인 마요르카 섬 팔마 시의 ‘안익태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한 호세 일라 팔마 시장, 박희권 주스페인 한국대사와 안익태 선생의 셋째 딸 레오노르 안 씨. ‘안익태 기념관’ 내부 모습(오른쪽).

부에 기증했다. 다국적 기업 인터볼고 그룹 창업자인 권 회장은 마요르카 저택이 팔릴 위기에 처하자 당시 25만 달러를 주고 매입, 수리한 후 한국 정부에 기념관으로 보존해 달라면서 조건 없이 기증했다.

안 선생은 1946년 마요르카 교향악단 초대 지휘자로 취임해 내전 이후 어려운 상황이던 마요르카 문화예술계 진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팔마에는 ‘안익태 거리’로 명명된 대로와 안익태 기념비도 있다. 안익태 선생의 후손들은 2002년 월드컵이 끝난 이듬해인 2003년 애국가에 대한 저작권을 한국 정부에 기증했다.

레오노르 안 씨의 외아들이자 안익태 선생의 손자인 미구엘 익태 안(41) 씨는 2013년 언론 인터뷰에서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직접적인 기억은 없지만 어렸을 때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집안 곳곳에 붙어 있는 사진 속의 할아버지를 보며 자랐다”면서 “할아버지에게 애국가는 전부였고 애국가는 노래로서의 의미보다 역사적인 의미가 더 있다고 평소 가족들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창]**

박성진 연합뉴스 파리 특파원

“

**안익태 자택, 개·보수...
한국 문화 알리는
홍보효과 기대**

”

애국가 작곡가인 고(故) 안익태(1906~1965년) 선생이 생전에 살았던 스페인 마요르카의 집이 ‘안익태 기념관’으로 새로 태어났다. 주스페인 한국대사관은 지중해 마요르카 섬 팔마 시에 있는 안 선생 집의 개·보수 공사를 마치고 안 선생 탄생 110주년에 맞춰 지난해 12월 15일 기념관 개관 행사를 개최했다.

박희권 주스페인 한국대사는 “올해 안익태 선생 탄생 110주년을 계기로 기념관으로 재단장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념관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1층을 안익태 유품 전시 공간으로, 2층은 레오노르 안 씨의 생활 공간으로 만들었다.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1층

에는 안 선생의 악보와 사진 등 기록물이 전시된다.

안 선생이 1965년 사망할 때까지 말년을 보낸 팔마 집은 현재 한국 정부 소유이며 레오노르 안 씨가 살면서 관리하고 있다. 안 선생이 남긴 집은 1990년 스페인 교포인 권영호 회장이 매입해 정

加 안방 웃기고 울린 ‘김씨네 편의점’ 인기리 종영... 올해 시즌2 방영

캐나다 국영방송 CBC-TV가 지난해 10월 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시리즈로 내보낸 시트콤 ‘김씨네 편의점’ (Kim’s Convenience)이 12월 27일 종영됐다. 이날 현재 시청자들은 ‘김씨네 편의점’ 공식 페이스북을 방문해 ‘좋아요’ 1만9천58개를 눌렀다. 아시아계 부모를 둔 1.5~2세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주연배우들은 시청자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방송 세트의 모델이 된 한인 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찾아 팬 미팅을 갖기도 했다. 이런 인기로 힘입어 CBC 측은 종영을 앞두고 “2017년 6월부터 총 13화로 시즌 2 제작에 들어갈 것”이라며 “가을부터 방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씨네 편의점’은 토론토에 이민한 김씨 가족이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벌어지는 재미있고 진솔한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물이다. 드라마 속의 김씨 부부는 1980년대 이민해 토론토 리전트 파크 근처에 편의점을 차렸고, 아들 ‘정’과 딸 ‘자넷’을 뒀다. 아들은 16살 때 가출했고, 아빠와 엄마는 예술학교에서 사진을 공부하는 딸과 편의점을 운영한다. 시청자들은 가족이 일하며 살아가는 동안 편의점을 운영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유머를 찾고, 아들과 아빠가 화해하는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봤다.

‘김씨네 편의점’은 드라마에 앞서 2011년 연극으로 먼저 관객에 선보였다. 무대에서 극본·연출·제작·연기 등 1



캐나다 국영방송 CBC-TV가 지난해 10월 4일부터 시리즈로 내보낸 시트콤 ‘김씨네 편의점’이 12월 27일 방영을 끝으로 종영됐다.

“

**한인 가정 그려
아시아계에 특히 인기...
페이스북 ‘좋아요’ 2만 개**

”

인 4역을 맡았던 한인 최인섭 씨가 TV 제작에도 참여했고, 아빠역을 맡은 이선형 씨는 연극과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아 열연했다. 연극과 드라마는 최 씨의 이민 생활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한 살 때 가족과 함께 이민한 그는 온타리오 주 이토비코 지역에서 친척이 운영하던 ‘김씨네 잡화상’이라는 편의점 건물 위층에 살았다. 실제로도 마트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편의점과 인연을 쌓았다고 한다.

2013년 초 연극 ‘김씨네 편의점’의 캐

나다 순회공연을 앞두고 최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유머러스하면서도 감동적인 방식으로 이민 1세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우리 부모님과 동세대 분들을 기리고 싶었다”고 털어놓았다. ‘김씨네 편의점’이 소수계층을 다뤘음에도 이렇게 보편적인 사랑을 받은 요인으로 그는 ‘유머’를 꼽았다.

최씨는 캐나다 요크대에서 연기를 전공한 뒤 여기저기 오디션에 보러 다니다 포기하고 직접 연극을 만들었다. ‘김씨네 편의점’은 토론토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초연돼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했고, 143개 출판작 가운데 ‘베스트 프린지 10’에 뽑혔다. 이듬해에는 토론토연극비평가협회가 선정하는 ‘올해의 연극상’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고, 이선형 씨는 최우수 배우로 선정됐다. 드라마는 CBC 웹사이트 (www.cbc.ca)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창**

재외동포 차세대 한상들, 모국 청소년에 장학금 지원

재외동포 차세대 경제인 모임인 '한상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 (회장 최분도, YBLN)가 2월 3일 서울 서초구 재외동포 재단에서 모국 청소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YBLN은 지난해부터 불우계층 청소년의 학업을 장려하는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시민연합의 추천으로 대학생 2명을 선발했고 이들에게 대학 졸업 때까지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게 된다. 장학생은 YBLN 회원 가운데 국내·국외 거주 회원 각 1명과 멘토-멘티 결연을 하여 멘토링 등의 도움도 받는다.

최 회장은 수여식에서 "장학사업의 취지는 어려운 형편의 모국 청소년이 역경을 이겨내 한민족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



재외동포 차세대 한상 모임인 한상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회장 최분도)는 2월 3일 재외동포재단에서 모국 청소년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도록 돕자는 것"이라며 "해외에서 활약하는 선배들과의 결연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는 꿈을 키워가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행사에는 장학생과 최 회장 등 YBLN 회원, 김영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방소희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시민연합 사

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수여식에 앞서 열린 멘토링에서는 1기 장학생인 장진영 군의 멘토인 일본의 이상훈 YBLN 회원이 오는 4월부터 1년간 무료 어학연수 및 한지 아르바이트를 주선해주기로 했다.

YBLN회원으로 가나아트센터에 미술·전시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이정용 회원은 1기 장학생으로 만화와 미술에 관심이 많은 이재원, 유은아 학생을 위해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 견학을 돕기로 했다.

YBLN은 재외동포재단이 매년 시행하는 세계한상대회를 통해 결성된 국내외 차세대 경제인 네트워크다.

31개국 18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장학사업 외에도 '한상 꿈꾸는 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고려인 청소년, 베트남 장애 어린이 등을 후원하고 있다.

“세계를 무대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중학교로 확대

재외동포재단은 국내 고교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올해부터 중학교로 확대한다.

올해는 2월 말까지 수요 조사를 벌인 뒤 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교육에 나설 계획이다. 외교부 전·현직 대사, 재단 임직원, 재외동포 분야 전공의 학계 인사 등이 강사로 나선다.

강사들은 재외동포 전반에 대한 기초 지식, 거주국에서의 활약상, 모국 기여 사례,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등을 소개하게 된다.

주철기 이사장은 "모국과 동포사회가 상생 발전하는 동반자 인식 구축을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재단이 재단 임직원을 비롯해 전·현직 외교관, 학계 인사 등이 강사로 나서는 '재외동포 찾아가는 이해교육'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위해 마련한 교육으로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꿈을 조기에 심어주기 위해 중학교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지금까지 고등학교 224개교 4만8천926명과 대학 89개교 9천339명의 학생에게 교육을 펼쳤다.

재외동포 주제 석·박사 학위논문 공모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를 주제로 한 석·박사 학위 논문을 공모한다고 최근 밝혔다.

재외동포 정책, 재외동포 국민 인식 제고 방안, 재외동포 사회와 통일, 한민족 정체성 함양, 한상네트워크 활용, 모국과의 협력 강화 등 재외동포와 관련된 주제의 학위 논문이 공모 대상이다.

재단은 재외동포 사회 발전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자 발굴과 육성을 위해 2012년부터 학위 논문 공모전을 열고 있다. 3월말부터 7월까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서 하반기에 시상식을 열 예정으로 최우수상에는 외교부 장관상과 학술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바른 말 고운 말

뺨아라 / 뺨어라

모 신문에 연재되던 칼럼 중에 '내 무덤에 침을 뺨아라'가 있었습니다. 이 칼럼의 제목을 보고 '뺨어라'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뺨아라'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한글 맞춤법을 보면, 어간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ㅑ'와 같은 양성 모음일 때는 어미를 '~아' 계열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어' 계열로 적도록 돼 있습니다.

'뺨다'는 어간 끝음절의 모음이 'ㅏ'나 'ㅑ'가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뺨어라'라고 쓰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른 모음의 경우는 별로 의문이 생기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어간 끝음절의 모음이 'ㅑ'일 때는 '~아'를 써야 할지 아니면 '~어'를 써야 할지 혼동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ㅑ'가 비교적 밝은 음색이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ㅏ' 소리와 같은 양성 모음 계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 어간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ㅑ'인 경우에만 어미를 '~아' 계열로 적습니다.

한 벌 / 한 죽

셔츠 세 장을 한 세트로 묶어서 팔거나, 바지 두 장을 한 세트로 묶어서 팔 때, 이것을 '셔츠 세 벌' 그리고 '바지 두 벌' 등으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벌'이라는 말은 옷이나 그릇 같은 것이 짝을 이루거나, 여러 가지가 한데 모여서 갖추어진 한 덩이를 셀 때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양복바지와 윗도리로 짝을 이루는 것을 '양복 한 벌'이라고 하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합해서 '수저 한 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셔츠 세 벌'이나 '바지 두 벌'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셔츠 세 장' 또는 '셔츠 세 점', 그리고 '바지 두 장' 또는 '바지 두 점'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물건을 세는 단위에 '죽'이라는 것은 옷이나 그릇 등의 열 벌을 한 단위로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버선이 생활필수품이어서 그랬는지 '신행에 버선 한 죽을 해갔다.'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낱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히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1월호 정답

	결	도	서	관		국	민
영	혼		유	세	수		
화		호	기	심			
관	우	미		장	마	철	
		관			구		
아	나	운	서		간	장	독
시		울	릉	도			불
아	리	랑			청	국	장
	라	원	송	이			군

▶ 오른쪽 방향 열쇠

1. 일정한 보수를 받고 남의 집에 가서 학문이나 기예 등을 가르치는 사람
3. 배추를 통째로 소금에 절여 씻은 다음 맵지 않은 소를 잎 사이에 넣어 소금물을 부어 익힌 김치
5. 사람의 마음을 호리는 이상한 술법. 사람의 눈을 속여 이상한 일을 해 보이는 재주
7. 잔공 유리관 안쪽에 형광 물질을 칠하여 수은의 방전으로 생긴 자외선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으로 바꾼 조명 장치
9. 추저분하고 창피스러운 태도나 짓거리. 'OO'를 부리다
10. 독성을 가진 약재. 극약보다 독성이 한층 강해 사람이나 동물이 극히 적은 양을 마시거나 먹거나 피부로 주입하더라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
12. 내장의 일부로, 소장 끝에서 항문에 이르는 소화기관을 말하며 큰장이라고도 불리죠
13. 한 집안의 만손자를 부르는 말
14. 나는 아버지의 할아버지를 'OO' 할아버지라고 부르죠
15. 서로 간에 인사나 친선 등의 표시로 서로 손을 내어 마주 잡고 흔드는 것
17. 더 좋거나 높은 직위로 옮겨감
19. 남대문은 한국의 'OO' 재호다. 보물 재호는 동대문
20. 몸의 생식 기능이 거의 완성되며, 이성(異性)에 관심을 두게 되는 젊은 시절
22. 돼지의 발을 요리한 음식
24. 수분을 제거하는 일. 세탁하고 'OO'를 한 다음 말려야 한다
25. 사람이나 동물 등 생물이 자라남. 아이들의 'OO'을 지켜보다

▶ 아래쪽 방향 열쇠

1. 이마에서 정수리까지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갈랐을 때 생기는 금
2. 네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 네모꼴
3. 백열 가스등이나 백열 전기등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4. 대구(大口) 과(科)에 딸린 바다 생선. 이 생선을 얼리면 동태, 말리면 북어라고 하죠
6. 술을 담그거나 담아 두는 독
8. 철이나 구리, 금 등 광석을 깨내는 곳
9. 원시 사회의 부족이나 부락의 우두머리
11. 악을 파는 사람
12. 발해를 세운 사람
15. 음악의 곡조를 일정한 부호를 써서 나타낸 것. 'OO'를 보면서 연주해라
16. 만물이 푸른 봄이라는 뜻으로 '스무 살 안팎의 젊은 나이'를 비유해 이르는 말
18. 예전 중국에서 여자의 발을 작게 만들기 위해 어릴 때부터 천으로 발을 옥죄어 자라지 못하게 하던 풍속, 또는 그렇게 만든 발
19. 국화 모양의 틀에 반죽을 넣어 구운 빵
20. 사형의 판결을 받는 죄수
21.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이라는 뜻. 위세 있거나 훌륭한 사람들, 또는 그들이 많이 모인 모양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23. 발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 발을 안 씻으면 이 냄새가 많이 나죠

바다의 우유로 불리는 영양 덩어라... 피부에도 좋아

겨울철 빼놓을 수 없는 별미, 충남 보령 '천북 굴구이'



1



2

1. 가게 100여 곳이 몰려있는 천북 굴단지에는 '굴구이'의 원조를 내세울 만큼 유명하다. 겨울이 깊어지면 제철 굴을 즐기려는 미식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2. 지난해 12월 16일 천북 굴 축제에서 관계자들이 대형 굴 비빔밥을 만들고 있다.

천혜의 어장이자 동북아 최대의 철새 도래지인 천수만은 보령 천북면, 홍성 남당리, 서산 간월도, 태안 안면도 등 4개의 시·군과 동글게 맞닿아 있다. 넓이는 여의도의 48 배에 이르고 해안선 길이는 약 200km에 달한다. 개흙을 품은 천수만은 천혜의 어패류 서식지로, 사시사철 싱싱한 어패류가 미식가들의 입맛을 유혹한다. 찬바람이 불면 천수만 일원은 새조개, 굴구이, 간재미 등 겨울 별미가 즐비하다.

천수만과 맞닿은 천북면 장은리 '천북 굴단지' 역시 찬바람이 불면 살이 통통하게 오른 굴을 즐기려고 찾아오는 손님들로 북적인다. 보통 굴하면 경남 통영을 꼽지만 '굴구이' 하면 '천북 굴'을 떠올린다.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에 있는 '천북'이 굴구이 원조이기 때문이다. 오래전 한겨울 매서운 추위 속에서 굴을 캐던 어낙들이 언 몸을 녹이기 위해 바닷가에 장작불을 피웠고, 허기를 달래보려 그 불에 굴을 껌질째 구워 먹었다. 의외로 짜지 않고 고소한 굴구이가 맛이 지인과 인근 주민들에게 입소문이 났다. 그러다가 몇 집이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굴구이를 내놓았고, 이것이 알음알음 알려지면서 20여 년 전부터 굴구이 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지금은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다.

한자어로 모려(牡蠣)·석화(石花) 등으로 표기하는 굴의 채취 시기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이다. 8월 산란기를 끝내고 찬바람이 날카로워질수록 맛이 더욱 깊어지는데,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가 맛이 가장 좋다.

요즘 천북 굴단지에는 굴 굽는 냄새가 진동한다. 장은리 포구와 접해 있는 단지에는 100여 가게가 줄지어 늘어서 있다. 입구에는 바다에서 막 따온 굴이 망태에 가득 쌓여 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니 바닥에는 가스 불에 오른 석쇠들이 즐비하다. 굴구이와 돌솥굴밥을 주문했다. 불이 켜진 석쇠 위에 굴을 소복이 얹어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뜨거움을 참지 못한 굴이 마침내 조금씩 입을 벌리기 시작했고, '탁', '탁' 경쾌한 소리를 낸다. 노르스름한 회색빛을 띠는 속살만 봐도 입에 침이 고인다. 목장갑 낀 손과 뾰족한 칼로 뜨거운 굴 껍데기를 확 벌려 가며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속살을 발라낸다. 익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먹음직한 하얀 속살을 입에

천북 굴구이 축제

천북 굴단지에 가면 미각 만족 그 이상이 있다. 천수만에 떠 있는 고깃배와 노을, 바닷바람이 일상생활의 찌든 때를 말끔히 씻어준다. 겨울 바다의 쓸쓸함도 있겠지만 그게 또 매력이다. 지난해 15회를 맞은 '천북 굴 축제'는 12월 16일부터 25일까지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굴단지에서 열렸다. 축제 기간에 굴구이, 굴밥, 굴칼국수, 굴짬, 굴 회무침 등을 맛보려는 인파로 붐볐다. 천북 굴단지로 가거나 오는 길에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인 만해 한용운 선생의 생가(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 소재. 사진), 청산리 전투의 영웅 백야 김좌진 장군의 생가, 조선 태조 이성계의 왕사였던 무학대사가 창건한 간월암 등을 둘러보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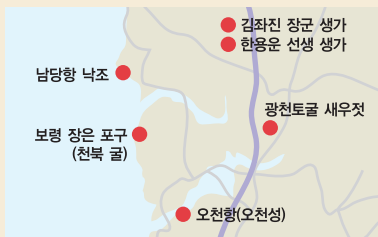
넣으면 바다 향이 입안 가득 퍼진다. 짭짤하고 담백하고 달콤한 맛이 그만이다. 파래무침에 초고추장을 살짝 찍어 먹으면 부드럽고 담백한 굴 맛과 잘 어울린다. 그 절묘한 맛에 굴까는 손길은 바빠진다. 굴 맛도 맛있지만 대어섯 개가 붙어 있는 굴을 까먹는 재미도 제법 쏠쏠하다. 파먹고 난 굴 껍데기가 수북이 쌓인다.

뚝배기에 굴을 넣고 지은 돌솥굴밥도 빼놓으면 안 되는 제철 별미다. 대추, 호두, 은행, 굴 등을 넣어 만든 굴밥은 고소하면서도 담백하다. 굴밥에 달래간장양념을 적당히 넣고서 비빈 후 한 숟가락 가득 입 안에 넣으면 싱싱한 굴과 양념장이 한데 어우러진 깊은 맛이 뱃속을 뜨겁게 채워준다. 칼칼한 국물이 입맛을 돋우는 굴 칼국수도 별미다.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굴은 타우린, 철분, 칼슘, 비타민, 셀레늄 등을 골고루 함유한 영양 덩어리로 예부터 스테미너 음식으로 알려졌다. '배 타는 어부의 딸은 얼굴이 까맣고 굴 따는 어부의 딸은 하얗다'는 말이 있듯이 굴은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는 성분과 비타민A가 풍부해 피부도 곱게 만들어준다. **[참]**



- 3. 짭짤하고 달콤한 천북 굴구이.
- 4. 돌솥굴밥도 빼놓으면 안 되는 제철 별미다. 대추, 호두, 은행, 굴 등을 넣어 만든 굴밥은 고소하면서도 담백하다.

보령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정보 보령 장은 포구(천북 굴) → 김좌진 장군 생가 → 한용운 선생 생가 → 오천항(오천성) → 광천토굴 새우젓 → 남당항 낙조

관광안내 보령시 대천역 041-932-2023 / 보령시 관광과 041-930-3872

대중교통 고속버스 (센트럴시티터미널-보령종합터미널 / 소요시간 약 2시간 10분)

기차 (새마을호 용산역-대천역 / 소요시간 약 2시간 19분)

식당정보 원조 후계자 굴구이 (010-8242-6092)

· 목소리 나는 앱 하나 장만하세요! 주요 생활 서비스 정보가 한곳에~

교육

- e-청소년
- 민간 교육 자료 공유 에듀넷
- 열거리는 대학제도 완성하게 대입정보포털

세금

- 질서는 국내환급금을 찾아주는 홈택스
- 지방세 '위탁식'도 편리하게 납부
- '나만의 맞춤 혜택 서비스'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원지 6만여 개 중에서 찾아드립니다.

일자리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워크넷
- 심업지원 신청 창업넷

건강

- 내가 먹은약 궁금하다면 건강정보
- 내 손안의 정신건강 전문의
- 예방접종도우미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 다운로드 방법 **지금 바로 혜택을 누리세요!**



Google play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검색 후 다운



One Store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검색 후 다운



App Store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검색 후 다운



QR Code
QR 코드를 스캔 후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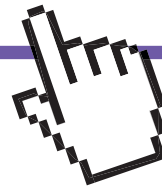
재외동포의 모든것,

KOREAN  NET 으로 통합니다.



재외동포 전문포털 코리아넷

www.korean.net



재외동포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한국 역사
한국 문화 콘텐츠



주요 재외동포
인물·단체 정보



재외동포단체 홈페이지
제작·지원 서비스



온라인 초청
지원사업 신청



재외동포단체
SNS 서비스



비즈니스 교류
및 정보 제공



한국어 한국문화
학습 콘텐츠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2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2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